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싸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2 내 모든 괴롬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3 내 짐이 점점 무거워 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4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후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1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2 눈물 나며 깊은 함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3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후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 담당

3/3(화)	3/4(수)	3/5(목)	3/6(금)	3/7(토)	3/9(월)
이봉상 안수집사	김민식2 안수집사	김주승 안수집사	차균오 안수집사	박기철 안수집사	최완림 안수집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엡4:3,롬12:11)

2026년 3월 3일(화)

이른아침예배

(사순절 묵상·부흥사경회를 위한 기도주간)

인도 : 박성락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찬 송 ····· 337장 ····· 다 함 께
기 도 ····· 이봉상 안수집사
성경봉독 ····· 마태복음 11:25~30 ····· 인 도 자
찬 양 ····· 나에게 돌아오라 ····· 새벽찬양대
설 교 ·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는 창문』** 이상학 담임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함 께
찬 송 ····· 365장 ····· 다 함 께
축 도 ····· 설 교 자

< 오늘의 묵상 >

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 2026년 사순절 묵상 : "광야에서 시작해 영광 가운데로">

3/2(월)	3/3(화)	3/4(수)	3/5(목)	3/6(금)	3/7(토)
마태복음 5:1~2,6:5~15	마태복음 11:25~30	요한복음 17:1~8	요한복음 17:9~19	요한복음 17:20~26	마태복음 26:36~46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3월 3일(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불러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주님 보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어린 아이처럼 순전한 자로 세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린아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어깨 위의 멍에가 무거울까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가시는 주님을 느끼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의 어머니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새문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다음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예배당이 온전하게 헌당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담임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사역 위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에게도 성령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부흥사경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로 준비하는 부흥사경회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나라가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갈등이 심화되며 분열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 땅을 덮어 분열이 종식되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 서	날 짜	장 소
청년 1부	3/6(금) ~ 3/8(주일)	새문안수양관
청년 2부	3/27(금) ~ 3/29(주일)	새문안수양관